

19.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느낌
(혹은 확신) _____
20.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느낌 _____
21. 나의 행한 어떤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 벌
을 받았다는 느낌 _____
22. 사탄에게 시험을 받
았다는 느낌 _____

교회는 왜 「공동 번역 성서」를 사용하지 않는가

박삼우
(부민교회 당회장)

1. 서론

교회 안에서 왜 공동 번역 성경을 사용하지 않는냐는 질문을 몇 번 받은 적이 있다. 개역 성경은 표현이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은 데 비해 공동 번역 성경은 쉬운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왜 개역 성경의 사용을 꼭 고집해야 하느냐는 물음이다. 개역 성경의 표현이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다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공동 번역 성경은 그것이 교회에서 사용되기 어려운 이유를 가지고 있다. 이 글은 바로 그 이유를 지적하는 목적으로 쓰여진다.

기독교의 역사를 선교의 역사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한 면으로는 Contextualization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다. Contextualization은 말 그대로 복음의 불변의 내용이 어떤 특정한 문화와 실존 상황 속에서 그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미를 주는 형태로의 변형을 말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어진 상황에 복음의 합법적인 응용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Herman R. Ericson 교수는 Contextualization의 이론적 기반을 신약 성경을 실례로 들면서 증거하고 있다. Ericson 교수는 신약 성경 그 자체에서 Contextualization의 최초의 실례를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¹⁾ 결국 Contextualization의 문제는 복음이 어떤 Context에 이식될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근래에 들면서 우리 나라에서도 한국 문화권에 전래된 복음이 서양화의 각색으로 인한 서구적 기독교 복음이었다는 비평이 많이 일어났다. 그리하여 한국의 신학을 한국적인 복음의 재발견을 위해 脫서양화시키려는 시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문제는 복음이 수용되는 문화를 중시하여 다루므로 토착화 운동으로 나타났으나 근간에 와서는 문화뿐만 아니라 보다 포괄적인 모든 상황을 문제시하므로 Contextualization의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벌써 부터 복음 그 자체를 한국 문화의 고유성에 정착시켜 한국적 이해로써 성립된 성경을 갖고자 하였다. 그 오랜 동안의 노력의 결과로써 탄생한 것이 바로 「공동 번역 성서」이다. 「공동 번역 성서」는 한국에 있어 Contextualization 시도의 대표적인 예요 또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1) Ericson, Herman R., "Implications from the New Testament for Contextualization," in *Theology and Mission* edited by David J. Hesselgrave (Baker Book House, 1978), p. 71. 여기서 Ericson은 New Testament에 있어 Contextualization의 대표적인 예로 ①행 15:1-29 ②고전 8:1~10:22 ③고전 5:1-8 ④골 3:8~4:1을 들고 있다.

2. 공동 번역 성서의 Contextualization 방법적 원리

대한성서공회는 1977년 부활절을 기해 신·구교가 공동으로 번역한 「공동 번역 성서」를 발행하였다.²⁾ 이 성경은 머리말에 밝힌 대로 신·구교 학자들이 공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 성서 원전의 성립과 바티칸 제2공의회 이래로 일어난 가톨릭 교회 내의 변화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³⁾ 그래서 이 성경을 번역함에 있어 "1968년 1월 신·구교 대표로 구성된 공동 위원회가 공동 번역을 결의할 때 다음의 두 원칙을 따르기로 하였다"고 하였다. 이 두 원칙은 첫째는 세계성서공회연합회와 바티칸이 합의한 Guiding Principles이고 둘째는 공동위원회가 번역 원칙으로 택한 Dynamic Equivalence이다. 이 둘 중 이 글의 논제가 되는 것은 Dynamic Equivalence이다.

Dynamic Equivalence란 미국 성서공회 번역 실장인 Eugene A. Nida 박사가 대중화시킨 성경 번역의 방법론적인 이론으로서 독자적 번역이나 형식적 일치에 대조되는 내용의 동등성을 강조하는 이론이다.⁴⁾ 공동 번역 성서가 머리말에서 "독자들이 원문을 읽는 사람과 같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번역에 있어 최고의 강조점을 둔다"고 했을 때 바로 이 점을 말한 것이다. 여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성경이 기록된 상황에서의 그 내용이 지금 우리의 상

2) 「공동 번역 성서」는 영어로 'The Holy Bible Common Translation'이라고 이름붙였는데 어떤 책자는 「The Ecumenical Bible」이라고 하기도 하나 신·구교 전체의 합의가 없는 몇 사람만이 번역 「공동 번역 성서」는 진정한 "Ecumenical"이라 할 수 없다.

3) 1965년 제2차 바티칸 회의는 「계시」에 관한 규정에서 어떤 경우들에서는 로마 카톨릭도 "갈라져 나간 형제들과 협력하여" 성경을 번역해도 좋다고 선언했다.

4) Nida가 Formal Equivalence와 Dynamic Equivalence를 구별했듯이 Nida 이전에 이미 D. S. Carne-Ross가 Transposition과 Translation을 구별했다. 원천 원어의 숙어적 표현이나 문학적 관습의 표현 등을 그대로 옮기는 Transposition은 Formal Equivalence와 의미가 같으며 Translation은 Dynamic Equivalence와 같은 의미이다.

황에서 같은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표현되어야 하느냐 하는 점이다. 이것은 곧 성경 내용의 Contextualization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동 번역 성서가 그 번역 원리로 Dynamic Equivalence를 채택했다는 말은 곧 공동 번역 성서는 성경의 Contextualization을 목표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Dynamic Equivalence는 성경을 Contextualization하기 위한 방법적 원리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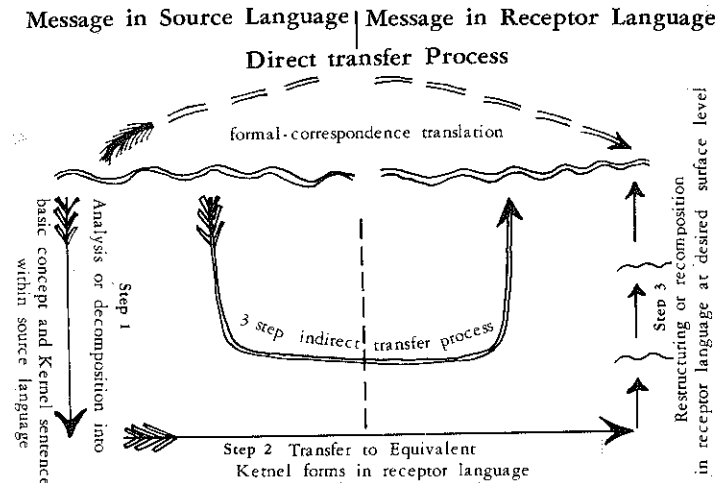
3. 공동 번역 성서의 Contextualization 과정

공동 번역 성서의 번역 원리 Dynamic Equivalence는 곧 Contextualization의 방법적 원리라고 했다. 따라서 공동 번역 성서의 Contextualization의 과정은 Dynamic Equivalence의 번역 과정을 통해 살펴 볼 수 있다.

Nida에 의하면 Dynamic Equivalence는 원천 메시지의 내용의 전달에 역점을 둔다.⁵⁾ 이 번역 원리에 따라 공동 번역 성서는 직접 이전(Direct transfer)으로 번역되지 않고 3단계의 간접 이전(Indirect transfer)의 과정을 거쳐 번역되었다. 원문 그대로의 원 형태(Original form), 문법적 형태(Grammatical form), 구성(Structure, sentence, clause)을 중시하는 형식적 일치(Formal Correspondence)의 경우 Contextualization이 이루어질 수 없다. 한국성서공회 성서 번역 실장 문 익환 교수는 실례를 이렇게 들고 있다. 마가복음 1:4의 “세례 요한이 일어나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에서 “회개의 세례”란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것은 원문에 충실하려는 의도

5) Dynamic Equivalence의 내용을 설명하는 Nida의 저서로, *Towards a Science of Translating* (Leiden, 1964), *Bible Translating* (London, 1947), *Theory and Practice of Translating* (Leiden, 1969), *Exploring Semetic Structure* (Munich, 1975), *Componential Analysis of Meaning* (Mouton, 1975) 등이 있다.

뿐 그 번역이 독자를 움직여서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는 염두에 두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무의미한 번역이 생겨난 것이라고 했다. 원문이 원어로서 자연스러웠던 것처럼 번역문도 우리 말로서 자연스러워야 한다. 그렇게 될 때 성서의 신앙은 우리의 생과 역사의 궤도를 달리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⁶⁾ 이렇게 성경의 메시지가 우리의 상황에 맞도록, 다시 말하면 Contextualization되어 번역되기 위해서는 메시지를 분해(decomposition)해서 다시 개편(recomposition)한 간접 이전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 3단계의 과정은 첫 단계는 원천 언어의 범주에서 본문을 핵 문장으로 분해하고 기본 개념을 분석하는 문법적 분석의 과정이요, 둘째 단계는 분해 분석된 요소들을 그대로 수용 언어의 기본 형태들에 옮기는 이전의 과정이며, 세째 단계는 그 핵 문장들을 수용 언어에 맞추는 재구성의 과정이다. 이 3단계를 도표로 작성해 보면 다음과같이 나타난다.



6) 문 익환 “히브리어에서 한국어로”, 『신학사상』 (VII, 1974), p.687.

(1) 첫째 단계 : analysis

간접 전사 과정에 있어서 첫째 단계는 Source 메시지의 '표면 구조' (surface structure)의 문제를 취급하는 lexical and grammatical analysis를 하는 곳으로 낱말 하나하나가 문맥 속에서 어떤 기능을 하느냐, 또한 낱말들이 문맥 속에서 지니는 기능에 따라 ① 객체어(object word) ② 사건어(event word) ③ 추상어(abstract word) ④ 관계어(relational word)로 분류한다. 예를 들면 하늘, 땅, 나무, 돌, 사람, 짐승 등은 객체어로서 사건어나 추상이나 관계로 탈바꿈할 수 없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며, 오다, 가다, 먹다, 죽다와 같은 동사나 사랑, 말, 꿈, 지식, 구원, 죄, 회개, 용서, 세례 같은 명사는 사건어이다. 크다, 작다, 밋다, 빠르게, 느리게 같은 형용사 및 부사와 아름다움, 귀여움, 고상함, 정의, 불의 등 명사어들은 추상어이고 접속사나 토씨, 전치사는 관계어이다. 이러한 분류는 문법학자들이 품사로 나누어 정리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Surface Structure' (표면구조)에서 기본 개념을 분석하는 과정은 ① 문법적인 관계와 ② 단어의 의미와 단어들의 결합성으로 구별한다. 그리고 단어들과 단어 결합 사이의 의미있는 관련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단어들이 설명하는 사물에 대한 the referential meaning과 언어의 사용자가 낱말들과 그들의 관계를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간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하는 the commotative meaning으로 구별해야 하는 것이다.⁷⁾

(2) 둘째 단계 : transfer

첫 단계의 문법적 분석 과정에서 모든 낱말들을 기능별로 분류하

7) 이 점을 상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Nida와 Charles R. Taber가 공동저작한 *The theory and Practice of Translation* (Leiden, 1969)을 읽어 볼 것

고 그 관계를 정해 놓으면, 품사나 문법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이 문장을 분류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해서 전사 과정에 받아들여지는 언어에서는 가장 단순한 구조로서 동등한 핵적 형태를 조성하게 되고 분석해서 얻어지는 가장 작은 문장을 핵 문장(Kernel sentence)이라고 하게 된다. 모든 언어에 공통되고 기본이 되는 핵 문장은 주어 서술어 형식을 갖추고 있게 된다. 이러한 핵 문장은 언어학자들에 의하면 첫째는 '～는 ～이다'(equational state type)와 둘째는 '～는 ～하다'(action type)라고 하는 형태인데 예를 들면 '이 나무는 좋다'라고 하면 첫째에 속하고, '나는 산다' '나는 그를 사랑한다'는 둘째에 속하게 된다. 인간의 언어 활동이란 이 두 핵 문장의 끝없는 변형으로 표시된다.

이러한 분석의 과정을 거쳐서 번역자의 정신에 의하여 A라는 언어로부터 B라는 언어로 전사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 과정이다. 전사하는 과정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전사자 자신의 개별적인 문제와 전사에 대한 전사자의 개입 문제이다(person problems in transfer and personal involved in transfer). 전사 과정의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Nida가 6가지로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⁸⁾

(3) 세째 단계 : restructuring (recomposition)

제 1단계의 analysis와 제 2단계의 transfer의 변형 과정을 통해 번역을 위한 가장 단순하고 핵심적인 문장이 구성되었다고 하면 receptor language에서 원메시지에 나타난 관계를 재해석하여 새로운 표면체 구성(a new surface structure)을 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restructuring, 혹은 recomposition이라고 한다.

분석해서 얻은 가장 작은 핵 문장이 번역자의 전사를 통해서 여러

8) Ibid., pp. 103-122.

가지 변형 (transforms)되어 표현되어진 실례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앞서 인용한 마가복음 1:4을 보면 Greek로서 “죄의 용서”와 “회개와 세례”란 두 구절이 있다. 이것을 핵 문장으로 분석하면 ‘① 사람이 죄를 지었다. ②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신다. ③ 사람이 (죄를) 회개한다. ④ 요한이 세례를 베풀다’라고 하는 4개의 핵 문장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된다. 이 4가지 핵 문장은 헬라어로 변형된 모습이다. 한국어에서는 이런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다. 번역한다는 것은 이 네 핵 문장을 뜻이 되게 관계를 지어 주면서 자연스럽게 재구성해서 한국어말로 변형하는 것이다. 이것을 시도해 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개의 가능성이 이루어진다.⁹⁾

- ① “사람이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 ② “죄를 청산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래야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
- ③ “지은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고 싶거든(싶으나),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이 밖에도 변형의 가능성은 많이 있다. 이 많은 변형 가운데서 어느 하나를 택하느냐 하는 것은 문학적 스타일의 문제이며, 추상어나 관계어로밖에 보이지 않는 많은 말이 우리말에 와서는 문맥에 따라 사전어가 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공동 번역 성서」는 본 문장을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라고 번역하였다.

9) 문 익환, op.cit., p.696

4. 공동 번역 성서의 Contextualization의 결과 및 문제점

「공동 번역 성서」는 그 번역 원칙으로 Dynamic Equivalence를 적용한 결과 성경 번역에 있어 Contextualization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Dynamic Equivalence를 통해 이루어진 「공동 번역 성서」의 Contextualization은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켰다. 그중 중요한 몇 가지를 살펴보겠다.

(1) 축자 영감 교리의 파괴

「공동 번역 성서」는 Contextualization을 위해 많은 경우 풀어 쓰기 입장에서 번역문이 확장되었고 또한 그 반대로 많은 경우 극히 중요한 성경 원어가 임의로 삭제되고 있다. Nida의 이론에 의하면 Dynamic Equivalence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되어 있다.¹⁰⁾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은 히브리어 한 단어를 여러 가지로 번역하여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예를 들어 보면 𐤇𐤍의 경우 시편에서만 110회 나타나는데 그중에 ‘목숨’으로 번역된 것이 40회, 영혼 - 21회, 몸 - 19회, 나 - 12회, 우리 - 3회, 마음 - 8회, 목 - 3회, 사람 - 2회, 생명 - 1회, 배 - 1회, 가슴 - 1회로 번역되어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구약에서 창 1:2; 삼상 10:6, 10; 11:6; 왕하 2:16; 겔 11:5, 24; 36:27; 37:1 등에서는 “기운”으로, 창 41:38에서는 “신통한 생각”, 출 31:3; 35:31에서는 “신통력을 지닌”, 출 28:3에서는 “슬기로운 생각”, 민 27:

10) William L. Wovverly, *Bible Translations for Popular use* vol VII pp.169-178.

18에서는 “정기”, 시 51:11에서는 “당신의 기록한 뜻”, 시 134:10; 사 32:15에서는 “영기”, 사 63:10에서는 “그의 극진하신 마음”, 단 5:12에서는 “신통력”으로 임의로 오역, 또는 성령을 부정하고 있고, 대상 28:12; 미 3:8에서는 고의적으로 성령을 번역하지 않고 탈락시키고 있다.

이상과 같은 현상에서 나타나는 뚜렷한 사실은 「공동 번역 성서」는 Contextualization을 너무 의식한 나머지 성경의 축자 영감의 교리가 완전히 무시되어 버렸다.

한 나라의 언어가 그 역사와 전통을 지니고 있는데, 그것에 속한 문서를 전혀 역사적 배경과 문화의 성질이 다른 나라의 언어로 옮긴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차라리 불가능하다고 단언하는 것이 나올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작업이 아무리 어렵고 난사라 할지라도 그것이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인 한, 번역은 원문에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1611년 K.J.V. 번역에서는 “가능한 한 히브리어와 헬라어 원문에 일치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되었다. 이러한 원리는 성경의 축자 영감설에 대한 존중으로써 나타난 것이다. 성경 번역에 Dynamic Equivalence를 처음 시도한 팻제랄드는 “박제된 독수리보다 산 참새가 좋다”고 말하였는데 더욱 중요한 사실은 참새는 독수리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참새를 통해서 독수리에 관해 연구할 수 없고 독수리에 대해 알 수 없다. 한 마디로 「공동 번역 성서」는 원문에 축자적으로 정확하지도 충실하지도 못했다. 축자 영감의 교리가 파괴될 때 그것은 성경 영감의 교리를 위태롭게 만든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록 어려운 말일지라도 변질된 인간의 말이 첨가된 것보다는 훌륭한 것이다.

(2)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심판

「공동 번역 성서」는 성경의 절을 바꾼 경우, 난해한 본문을 추측

해서 번역한 경우, 난해한 부분이 본문에서 삭제되어 버린 경우, 본문의 뜻이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즉 앞뒤의 내용과 조화되지 않는다고 하여 내용을 고쳐서 번역한 경우 등이 허다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성경을 번역함에 있어 Dynamic Equivalence의 Indirect Transfer의 방법을 채택한 필연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것은 「공동 번역 성서」 번역 책임자인 문 익환 박사가 밝힌 대로 Indirect Transfer에 있어서는 번역에 주석이 자연적으로 포함되기 때문이다.¹¹⁾ 주석에는 주석자의 신학적 입장이 개입되지 아니할 수 없다. 예를 들면 「공동 번역 성서」는 요나서 2장에 있어 10절을 1절과 2절 사이로 옮겨 버렸다. 옮긴 이유는 요나의 기도를, 구원을 호소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기도라고 볼 때 10절은 1절과 2절 사이에 두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¹²⁾ 이것은 번역에 본문 비평이 적용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실 문 익환 박사는 본문을 회복하는 작업을 하지 않고는 번역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번역에 있어 본문 비평의 필연성을 주장하고 있다.¹³⁾

또 다른 예를 들면 에스겔 41:7은 본래부터 난해한 구절 중의 하나이다. 그런데 「공동 번역 성서」에서는 이것을 번역자가 임의로 그 뜻을 추측하여 쉽게 번역해 버렸다. 또 에스겔 21:10은 난해할 뿐더러 본문과 뜻이 맞지 않다고 하여 성경에서 삭제해 버렸다. 욘 2:7; 1:8; 사 11:13; 19:23과 같은 경우에는 본문의 뜻이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다시 말하면 ‘앞뒤의 내용과 조화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은 틀린 것이다’라고 해서 고쳐서 번역해 버렸다. 삼상 13:1의 경우에는 본문의 내용이 이치에 맞지 않다고 하여 번역하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결국 성경 본문에 대해

11) 문 익환, “심포지움:공동번역 성서 평가” 「신학사상」(11x11, 1918), p.94.

12) Ibid., p.89.

13) Ibid., p.90.

어느 것은 옳다, 어느 것은 옳지 않다고 번역자가 스스로 결정하는 심판자가 되었음을 증거한다. 성경은 누구나 읽고 구원의 진리를 발견하기에는 명백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말은 성경의 모든 구절들이 그 뜻이 인간의 이성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되었다는 말은 아니다. 성경에는 아무리 훌륭한 신학자라 할지라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구절들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공동 번역 성서」는 내용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면 번역할 수 없다¹⁴⁾는 Contextualization에 있어 필연적인 번역 원칙에 따라 성경의 모든 구절들에 대해 판단을 가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과감하게 심판하여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을 빼버리거나 바꾸거나 고치거나 해버렸다. 공동 번역 성서의 Contextualization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인간이 심판자가 되는 결과를 야기시켰다.

(3) 사마니즘적 표현

성경 번역에 있어 Formal Equivalence에서는 “Is this a Correct Translation?”이 필연적인 질문이었으나 Dynamic Equivalence에서는 “For whom?”이 새로운 중심점으로 등장하게 된다. 이것은 곧 성경 번역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어떤 Context에로 번역될 것인가 하는 것임을 말한다.

「공동 번역 성서」는 한국이라는 Context에로 번역된 성경이다. 문익환 박사는 그 중에서도 「공동 번역 성서」는 교회 바깥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¹⁵⁾ 그래서 「공동 번역 성서」는 교회 안에서 통하는 언어를 배제하고 교회 바깥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말로 번역했다고 한다. 더구나 구교의 장벽 안에서나 신교의 울타리 안에서 통하는 말은 공동 번역에서는 아낌없이 버린다고 했다.¹⁶⁾

14) Ibid., p. 94.

15) Ibid., p. 503.

그런데 문제는 성경적 진리에서 완전히 이탈한 표현들이 그 결과로 「공동 번역 성서」에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5:6에 “아브람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에서 “의로 여기시고”를 “가특히 여기시고”라고 번역했다. “의”라는 단어가 한국인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단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의”는 기독교 진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본적 용어 중의 하나이다. “의”와 “가특히”가 같을 수가 있겠는가?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성경의 많은 용어와 표현을 사마니즘적인 것으로 바꾸어 버렸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면 [그] (예언하다)의 경우 사무엘상 10:5,6,10,13; 19:20,23에서는 이것이 “신이 들려”라고 했다. 그리고 민수기 11:25-27에는 입신하였다고 했다. 욥기 17:16에서는 “사망”을 “저승”이라고 번역했다. 예레미야서에서는 “점지”, “서당당”이란 용어도 튀어나온다. 이러한 예들은 대표적인 몇 경우에 지나지 않는다. 그 외에도 본문의 내용보다는 문화권의 습관이나 풍속을 고려한 문화적 각색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공동 번역 성서」는 한국이라는 Context에 성경을 번역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한국의 사마니즘과 전통 문화로 성경을 각색했다고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¹⁷⁾

5. 결론

100년의 선교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국 교회는 한국적인 상황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한국 고유의 토착적인 (proprium corea-

16) 문 익환, “히브리어에서 한국어로” p. 685.

17) 공동번역성서의 한국 사마니즘과 타협적인 모습은 「현대시조」(1972.12)에서 윤영택 “구약의 입장에서” 신성중, “신약의 입장에서” 주연홍, “공동번역 중의 성령모독” 등의 논문이 잘 밝혀 주고 있다.

num)성서'를 가지려고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이 「공동 번역 성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복음이 타문화권으로 이식될 때 필연적으로 갖게 되는 논리일지도 모른다.

Norman Ericson의 이론과같이 성경 그 자체가 곧 Contextualization의 prime example이라 한다면 한국적 상황에서 긍정적 입장에서는 「공동 번역 성서」는 필연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성경 번역을 위한 준비 단계에서 살펴볼 때 얼마만큼의 실제적인 준비 과정을 거쳤느냐 하는 것과 번역 진행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과 거기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실제적인 도우심과 은사로 이루어지느냐하는 것이다.

번역의 원리에 있어 종래의 번역은 직접 이전의 과정을 통하여 원천 언어의 문법적 형식이나 문장 구조나 단어 배열 순서를 그대로 유지하며 원천 본문에 사용된 단어들에 대한 수용 언어의 공정한 대응 단어 (stereotyped equivalents)를 견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 대표적인 것이 Aquila역이다. 그러나 「공동 번역 성서」는 섹죽어와 헬라어로 쓰여진 성경을 20세기의 다른 언어로 번역한다고 할 때 시간적으로 현격한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문화적 및 언어적 배경의 차이 역시 현격하기 때문에 종래의 형식적 일치 번역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Dynamic Equivalence를 추종한 것이다. 이것은 성경의 번역에 있어 Contextualization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공동 번역은 번역하려고 하는 근원 문화보다 번역되어지는 수용 문화에 더 강조점을 두어 주석적 번역의 결과를 가져와 비단 원리의 문제뿐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게 되었다. 원문의 뜻을 그대로 전하기보다 Context에 맞게 (어울리게) 표현하려는 데 집착한 나머지 원문을 왜곡하여 번역하거나 번역자의 주관과 신학적 입장이 본문을 심판하는 번역을 가져오게 된 것이다.

성경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물론 이 성경의 원본은 우리가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축자 영감 교리를 믿는다. 본문은 본문 그대로가 축자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성경 번역은 비록 그 결과가 쉽게 이해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번역본을 탄생시킨다 할지라도 Formal Equivalence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Formal Equivalence라고 해서 어렵고 난해한 번역본을 가져오는 것은 물론 아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Contextualization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번역자의 사명이 아니라 주석자나 설교자, 그리고 나아가 그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이 해야 할 문제이다. 백 번을 양보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을 가지는 것이 사람의 말을 가지는 것보다야 훨씬 낫지 않겠는가?